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노 재 승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작품 연구논문

도시 여성의 욕망에 의한 허구성 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2010

성신여자대학교 아트·디자인대학원

조형예술학과 조각전공

정 민 선

도시 여성의 욕망에 의한 허구성 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노재승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9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아트·디자인대학원

조형예술학과 조각전공

정민선

인 준 서

정민선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아트·디자인대학원

논문개요

여성의 의미와 가치를 지나간 시간들과 연계하여 살펴봄은 현재 속에 생명을 불어넣어 소생시키는 것과 같다. 그리고 더 나은 미래생성에 연관을 맺게 하는 것이 된다. 그것은 우리자신을 풍요하게 해줄 것이며, 인간과 도시화된 사회를 올바르게 인식하는 비전이 될 것이다. 또한 바로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지금의 모습들을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열쇠가 된다.

현대도시여성들의 이미지는 유행과 깊은 연관성을 가진다. 대중적 상품이 주류가 된 도심 속 상점과 거리에서 여성들은 저마다 독특한 자신의 취향을 패션과 물질적 가치를 통하여 민감하게 즐기고 있다. 하지만 넓은 범주에서 보면 유행이라는 집단적 사고에 의해 만들어진 획일화된 패턴(pattern)으로 보이게 된다. 이러한 이미지를 본인 작품의 연구과제인 조형적 패턴으로 나타냈다. 또한 형태적 표현과 시각적 요소는 드로잉적 이미지로 나타낸 이차원 평면을 시발점으로 하여 공간을 점유하는 삼차원의 입체적 선의 형태를 창조하였다. 본고에서는 이를 ‘드로잉된 스토리’로 명명하였다.

본인 작품에 생성된 여성들의 모습은 첼이나 스테인리스 스틸 등으로 나타나며 금속성의 질감에 채색이 곁들여 진다. 이렇게 탄생한 여성들의 이미지는 여성이기 이전에 한 개인으로써 세상과 만나는 상징성을 갖는다. 이것을 어떤 시각으로 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의미를 형태와 재료적 표현에 근거하여 이론적으로 서술하고 어떠한 조형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본 논고를 통해 밝히고자 한다.

제 I 장 서론에서는 본고의 연구 목적인 도시에서 포착된 여성의 이미지를 시각화한 본인 작업의 전개에 대한 설명과 연구의 범주에 대해 서술하였다.

제 II 장 본론에서는

1. 이론의 바탕이 되는 ‘허구적 욕구’와 유행이나 소비성향에 따른 ‘여성의 민감성’을 통하여 본인 작품이 형성되는 근거를 서술하였다.
2. 드로잉과 캐릭터 이미지를 통하여 형태표현기법을 서술하였다.
3. 작품분석 및 재료적 기법에 대하여 서술 하였다.

제Ⅲ장 결론에서는 논문의 내용을 정리하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 있는 방향을 재검토 하였다.

이처럼 본 논문에서는, 심플함과 화려함으로 치장된 현대도시에서 여성들이 발현해 내는 생명에너지를 ‘회화적 표현이 도입된 평면조각 연구’로 접근했으며, 본인의 조형예술의 심화과정을 확장하는 범위로 제시 하였다.

목 차

논문 개요

I. 서론.....	1
II. 본론.....	2
1. 이론적 바탕.....	2
1) 허구적 욕구.....	2
2) 여성의 민감성.....	5
2. 형태적 표현 기법.....	8
1) 드로잉.....	8
2) 캐릭터 이미지.....	10
3. 작품 분석 및 재료적 기법.....	12
III. 결론.....	44

참 고 문 헌

참 고 도 판

ABSTRACT(영문초록)

작 품 목 차

[작품 1] 명품 - 가짜	12
[작품 2] 싸가지적 이미지-금연 건물	14
[작품 3] 일상	16
[작품 4] 좌대 위에서	18
[작품 5] Heel	20
[작품 6] 이중적 자아	22
[작품 7] 비너스-이중적 자아	24
[작품 8] happiness -1kg	26
[작품 9] 39 정류장	28
[작품10] 5분만	30
[작품11] 꽃	32
[작품12] Shall we dance	34
[작품13] 스타킹	36
[작품14] 생각 중	38
[작품15] 사춘기	40
[작품16] 술-그리고 美	42

I. 서 론

도시의 생성과정에서 사회는 여성에게 특정한 시간과 공간에서 남성보다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권한이 우월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부분적인 면이 전체적인 사실을 결정할 수 없는 한, 인류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은 그 기술(記述)에 있어서 무시 또는 경시되고 종속적인 지위를 감수(甘受)하며 살아왔다. 여성은 스스로의 노력과 인류의 각성을 통하여 여성의 지위향상을 주장하게 되었다.

현대여성들은 과학의 발달과 거대자본의 영향아래 도시의 높은 빌딩과 백화점의 명품들, 유행에 따른 사치와 복제품 속에서 과시적 소비욕구를 충족시킨다. 그리고 과학과 기술의 발달은 중산층의 ‘일반대중’을 등장시켰고, 이와 더불어 현대사회는 고도로 조직적이며 기계화된 산업사회로 빠르게 변화하며 인간성 상실이라는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게 된다. 여기서 전통적 가치관의 동요와 새로운 가치관의 정립이라는 어려운 과제에 봉착하게 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질서는 유행과 사회현상의 변화를 동반하며, 특정집단 또는 문화전반에 걸쳐 거대한 소비문화의 일관성을 가지게 되었고, 허구적 과시에 의한 욕구충족의 수단이 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실이라는 본능적 욕구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여성들의 외향적 사고를 내적 바탕위에 형성시켜, 이를 주제로 본인 연구의 조형성을 다루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본고는 작품의 형성 배경이 되는 도시여성의 이미지를 드로잉하여 시각적인 조형물로 표현하는 것을 설명하는데 있다.

이를 토대로 ‘드로잉화된 캐릭터이미지를 평면적 3차원 조각’으로 연구하였으며, 작품제작에 있어서 이론적으로 구체화하여 논리적인 기반으로 삼음과 동시에 창의적이고 조형적인 연구과정을 밝혀 독자적인 작품세계를 정립해 나가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II. 본 론

1. 이론적 바탕

1) 허구적 욕구

여성들의 허구적 욕구는 허영(Vanity), 허욕(greed), 허세(bluff)등을 보이며 사치품, 유행, 취향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허구의 욕구는 타인의 시선에 비추어진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바라보는 것과 같다. 따라서 이 연구논문에서는 여성들에게 나타난 허구의 욕구가 어떤 유형의 것이며, “누구를 위한 것인가?” 또는 “어떤 목적으로 생성되었나?”라고 하는 것을 연구하여, 현대도시여성들에게 보인 현실의 반영과, 그 도시사회가 갖는 다수의 고안된 것들과의 일정한 관계를 설명 하고자 하였다.

우선 본인 작품<Shall we dance>[작품12]에서 이미지화된 여성이 긴 다리와 날씬한 몸매로 연출하는 화려한 댄스동작은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부러움의 대상이 되며, 문화를 소비하는 도시의 삶에서 다수의 여성들이 닮고 싶어 하는 이상적인 모습이 된다. 이러한 예는 광고나 영화장면에서 흔히 보이는데 여성 이미지의 이상적인 감상자는 ‘타인’¹⁾으로 설정되어 있다. 또한 여성은 보여 지는 자기 자신을 동시에 보도록 의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작품12]의 이미지를 통해 타인의 시각이 만들어낸 ‘미(美)’에 대한 사고와 감상안의 담론으로부터 여성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표현 하였다.

작품<happiness -1kg>[작품8]에서도 여성의 의식에 자리 잡은 자아를 ‘관찰자’와 ‘피 관찰자’ 두 가지로 분류시켜 보여지는 자기 자신을 동시에 주시하며

주1) 타인의 사전적 의미는 ‘다른 사람’을 의미하며, 본문에서는 아름답다고 보아주는 남성 또는 동일시되고 싶어 하는 여성이다.

그 이미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으로 표현하였다. 즉 체중계에 올라선 여성이 1kg감량에 날아갈듯이 기뻐하는 모습의 내부 관찰자가 타인인 것이다. 이처럼 여성들은 타인을 위해 날씬한 허리와 S라인을 만들려고 노력하게 되었고, 그 결과 성형 천국과 다이어트에 시달리는 사회가 되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이상적인 미의 상징으로서 비너스와 같은 여성이 숨겨져 있는데 이는 자본주의 성향으로 대체된다.²⁾

그리고 자본이 중심이 된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여성들도 삶이라는 무대 위에서 배우처럼 살아가기 위한 기술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즉 타인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는 자기연출에 대한 테크닉과 방법들이 요구되는데, 자본주의는 흔히 여성들의 자아표현 방법조차도 에로틱한 육체미와 교묘히 연결시켜 상품화 하였다.

“한국사회를 강타하고 있는 패션 코드는 바로 44사이즈. 여배우들의 몸매는 항상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른다. 유의미한 타자들의 시선에 보임직한 그릇으로서, 육체를 만드는 일에 사회는 열광하고 자신의 몸을 던진다. 외모중심주의, 열광 문화라는 신종 하위문화들이 지배력을 가지면서 우리 사회에 만들어 놓은 일종의 사이버 대세론이다. 이렇게 조작된 이미지들은 여성들을 지나친 다이어트와 운동, 기능성 속옷에 의존하게 하면서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³⁾

즉, 여성이 고통을 감내하면서 스스로를 억압하는 것은, 자신의 외모를 아름답다고 여겨주는 타인들에게 과시의 욕망표현이다. <명품-가짜>[작품1]에는 여성이 그러한 요구에 호응하여 신체적인 불편함을 감추고 있는 허세가 조형 이미지화 되었다. 이렇게 과시된 욕망표현은 모든 것이 몸에 걸치는 사물의 의미를 뛰어넘는다. 이것은 인간의 기능이나 필요성이 자본과 에로티시즘의 논리에 의해서 의도된 것이며, 이렇게 허구화된 욕구는 유행이 된다.⁴⁾

住2) 김홍기, 『샤넬, 미술관에 가다』, (서울, 미술문화, 2009), p.152.

住3) 김홍기, Ibid. p.152.

住4) 최민, 「광고이미지와 소비문화」, 『시각과 언어』, 1권, (서울, 열화당, 1991), p.164.

또한 유행은 도시여성들이 문화의 소비자로서 자신을 ‘신세대 여성’으로 부각시키는 방법으로 사용 하였고, 가벼운 유행을 매개체로 하여 과시하고 싶고 즐기고 싶은 욕망을 드러냈다.

이와 같은 과시의 욕구는 <싸가지적 이미지-금연 건물>[작품2]에서도 볼 수 있다. 여성이 도심의 건물 앞에서 뻔뻔하고 대담하게 담배를 피우는데 이는 도발적이며 싹수없게 보인다. 그렇지만 관찰자와 피관찰자의 입장에 따라 상반된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본인의 작품연구에서는 흡연여성을 ‘타인의 취향’으로 해석하였고, 이를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았다. 이 같은 이미지는 <좌대 위에서>[작품 4]에서 표현된 것과 같은 의미로서 자신의 욕구를 즐기며 나아가고자 하는 당당한 여성이 표현된 것이다.

‘과거’⁵⁾에는 여성들이 개인적인 자의식의 발현이나 육체적 욕망에 대한 정신적 인고를 강요당했고, 또한 가부장제도의 규범에 봉사하는 것을 최고의 미덕으로 삼았었다. 이러한 과거 여성들의 모습은 발달한 현대 도시여성들의 모습에서 보이는 이미지와는 상반된 것이다. 본인의 연구에 나타난 <술~그리고 美>[작품16]에서 보인 흐트러진 도시여성 이미지는 이전세대의 가치관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는 현대 여성들의 ‘허구적 욕구’가 반영된 조형작품이다.

이를 표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도시에 던져진 여성의 이미지를 본인이 체험한 감정과 연계하여 상징화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체험’들을 일반대중에게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의 문제는 작품 제작자의 몫이기도 하지만 예술의 궁극적 목적이기도 하다. 따라서 경험한 감정들을 전달할 때 생기는 ‘감정의 전염’을 통해서 생성되는 도시의 일상적 이미지들을 작품제목에 따라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내었다.

결론적으로 [작품 1, 2, 4, 8, 12, 16]으로 표현된 도시여성의 ‘허구적 욕구’는 타의에 의해 갑자기 밀어닥친 서구문화의 개방성과 급격하게 발전된 도시의 복잡한 구조적 특징들 속에서 변화와 반복의 과정을 겪는 모습들이다. 이러한

주5) 과거(過去)의 사전적 의미는 ‘현재에 앞서는 때’를 의미하며, 본고에서는 유교문화를 의미한다.

환경은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개인주의적인 사고를 생성시켰고, 자기 과시에 의한 허구적 욕구로 나타났다. 본인은 작품제작에 있어서 대중문화에 나타난 도시여성들의 가벼운 유행의 이미지와 취향에 나타난 모습들을 접목시켜 그들의 현재를 솔직하게 나타냄으로 문화적 해석코드를 찾으려는 시도와 이를 기반으로 유행의 창조적 이미지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2) 여성의 민감성

여성의 민감성은 명품이미지의 범주 속에서 보이는 정숙한 세련미와, 도발적인 섹시한 이미지가 혼용되며, 이런 이미지는 타인의 시선에 의해 만들어지는 감성이 된다.

1877년 마네가 그린<나나>(도판1)는 새틴 소재로 된 <코르셋>(도판2)을 입고 있다. 화가 스스로가 코르셋을 ‘우리시대의 누드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코르셋은 은밀하고 에로틱한 아이콘으로 사용되었으며 하이힐과 더불어 에로틱한 이미지를 대표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코르셋은 여성의 신체를 인공적으로 변형시킨 것으로서, 이러한 패션은 타인의 시선에 동조되어 유행에 민감한 감성으로써 이상적인 미를 창조해 낸 것이다.

이 같은 코르셋의 형태는 조선중기 화가 신윤복이 기생을 그린 <미인도>(도판3)에서도 잘 나타나 있는데 그녀의 옷은 좁은 팔소매와 짧고 달라붙는 회장저고리에 가슴 밑에서 허리까지 가느다란 천으로 칭칭 동여매어 상체의 라인을 드러내고 있다.⁶⁾ 이렇게 유행에 민감한 감성은 과시의 감성으로써 적극적으로 표현하려고 하는 욕구에서 온다.

그리고 코르셋 이외에 여성의 신체를 변형시키는 하이힐도 에로티시즘과 깊은 연관을 갖는다. 길고 늘씬한 각선미에 높고 뽕족한 ‘힐(heel)’의 이미지는

주6) 우리옷 출판국 편저, 『아름다운 옷』, (서울, 우리옷 출판국, 1992), p.325.

여성의 상징적이며 민감한 부분을 잘 드러낸다. 즉, 허를 통하여 여성들은 늘씬한 다리와 봉긋하게 돌출된 가슴과, S라인의 허리, 위로 올라간 엉덩이, 길어진 키를 통해 스스로를 만족해하며 발가락의 변형에도 개의치 않는다. 이러한 여성들의 이율배반적인 이미지들을 본인의 작품 <Heel>[작품5]를 통해 도시여성의 긴장된 발뒤꿈치의 높은 굽을 남성이 대신 힘겹게 바치고 있는 모습으로 드로잉하여 시각화 하였다.

앞에서 예시된 유행의 패션들은 여성들을 괴롭히는 것들이다. 그런데 왜 여성들은 그 힘든 육체적인 고통을 감내하면서까지 왜곡된 신체를 만들고 탐닉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데, 그것은 과거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여체에 대한 ‘감상안’과 더불어 여성 스스로 예속되려는 자의식과 주변의 시선으로부터 선택 받고 싶은 과장된 노력인 것이다. 또한 산업소비사회의 기능적인 측면이 도시생활에 반영되어 여성을 상품화시켰기 때문이기도 하다.

본인은 <명품-가짜> [작품1]을 통하여 유행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여성의 허구적인 욕구를 보여주었다. 붉은색의 옷을 걸치고 과장되게 비대한 여성이 명품에 대한 욕심을 부리고 있는 모습에서 ‘과연 그것이 명품일까?’라는 의문을 제기하였고, 이를 드로잉하여 코멘트(comment) 하였다. 즉, 작품에서 의미하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 무엇이든 간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살아가는 삶 속에서의 질(quality)⁷⁾이다”라는 것으로 유혹하는 상업자본주의의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의 모습으로서의 여성인 것이다.

그 외에도 상업 자본에 의한 빈부격차와 정보의 과다를 살펴봐야 된다. 불안한 사회구조 속의 여성들은 부(富)에 대한 동일시 욕구가 형성되어 가짜 명품에 대한 유희를 나타내기도 했으며, 그들과 세상을 정의하는데 개인의 독특한 취향이 유행이나 명품 등 계층된 조항들에 밀려 후순위가 되었다.

이러한 여성들의 민감한 소비욕구는 유행을 따르는 자기과시로서 욕구충족의 수단이 되었고, 본인의 연구 작품에서는 단순 과장된 형태로 유머러스하게

주7) 질(quality) 본질. 특성. 품질.

표현되며, 긍정적인 시각으로 풍자된 모습을 보여준다. 즉 본인은 현실에서 본능적 요구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심적으로 그와 같은 것들에 갈등을 느낀다. 하지만 외향적 사고는 내적인 질서의 바탕위에 형성된 것이기에 본인의 기질 자체를 바라보는 타인의 시선은 허구적이다. 따라서 불만을 가진 보통사람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관심을 창조적 에너지로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한다. 이것은 직접적으로 본인의 예술적 성장을 돕는 결과로 귀결되었다.

“정민선은 많은 여성들이 느끼지 못하는 여성의 자유와 희망을 거리에서 꿈꾸게 한다. 자신이 하고 싶은 목소리를 거리에서 만나는 많은 여성의 풍경으로 대체한다. 편견과 금기를 강조하는 이 시대의 지평에서 그녀의 작품은 한 여성 예술가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재미와 흥미를 유발한다. 가볍고 그러나 툭툭 튀는 발칙한 여성들, 그러나 그들은 솔직하다. 우리는 그것이 인간의 속성이며 여성의 단편이며 또 다른 속성임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녀에 의해서.”⁸⁾

위의 인용 글은 본인이 체험한 감정을 평론가가 읽어낸 것이다. 이러한 체험들은 도시와 인간에 대한 사랑을 바탕으로 그곳에 존재하는 ‘유행에 민감한 여성들’로 주제를 삼아 그들의 세계를 조형언어로 해석한 결과이다.

또한 그 이미지들은 도시 속에서 흔히 발견되는 소재를 물질적 부나 권력과 같은 수단적인 가치보다 더 소중한 ‘존재의 발현’이라는 것에서부터 출발했다. 즉 도시의 ‘가벼운 유행의 이미지’는 백화점이나 거리의 특색보다 먼저 유행에 앞선 진열장의 물건들이나 짝퉁시장의 복제품들이다. 이것은 유행의 이미지를 소비하는 도시여성들의 일상에서 포착된 유쾌하고 과장된 모습을 의미하며, 그들은 가벼운 유행을 매개체로 하여 과시하고 싶고 즐기고 싶은 욕망을 드러낸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드러나는 뻔뻔하고 대담하며 가끔은 도발적이며 짝수없이 보이지만 밉지 않고 차라리 미소 지어지는 유쾌하게 과장된 이미지가 본인 연구 작품의 실마리가 되었다. 따라서 연구 작품에서 민감하게 나타나는 여성들은 흠보다 시멘트를 마음의 고향으로 여기는 도시가 어울리는 그런 여

주8) 김중근, 『마음에 품는 현대미술』, (서울, 아트블루, 2009), p.165.

성들의 표현이며 동시에 본인의 모습이 투영된 것이기도 하다.

본인은 이러한 방법으로 <명품-가짜>, <짜가지적⁹⁾ 이미지-금연 건물>, <일상>, <좌대 위에서>, <Heel>, <이중적 자아>, <비너스-이중적 자아>, <happiness-1kg>, <39 정류장>, <5분만>, <꽃>, <Shall we dance>, <스타킹>, <생각 중>, <사춘기>, <술-그리고 美>등의 소재들로 설정하여 현대도시사회에서 생성되는 일상적 이미지들을 민감하게 과장된 시각으로 표현하고자 했다.

2. 형태적 표현기법

1) 드로잉

본인의 연구 작품들은 이차원적 표현요소가 삼차원적인 형태(form)로 전개된다. 간단명료하게 드로잉된 선들은 오려진 것과 비워진 판이 동시에 지각되는 구조, 그리고 드로잉된 선을 여러 각도로 벌려놓은 다차원적 시각, 그 외 단편적인 이야기 조각들을 결합시킨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였다.

이러한 예는 메나슈 카디쉬만¹⁰⁾의 작품 <Birth>(도판4)에서 드로잉된 면을 오려내 세움으로서 ‘보는 것’과 ‘보이는 것’으로 재구성되는데, 이는 본인의 연구 작품 <Shall we dance>[작품 12]에서 댄서(dancer)의 시선이 그림자를 주시하는 모습과 같다. ‘보는 것’은 주체로서 그림자를 통하여 현실의 규칙과 사태를 분석하는 바깥이 된다. 그림자로 설명된 ‘보이는 것’은 주체의 내면으로 설정되며 주체에 의해서만 성립되고 나타나는 대상이 된다. [작품 4]에서도 카디쉬만의 <Valley of Sadness>(도판5)와 거의 같은 구조적 특징을 지니며, 그

住9) 싸가지 [명사][방언]‘씩수’의 방언(강원, 전남).

住10) Menashe Kadishman(1932-): 이스라엘의 화가이자 조각가.

것에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추가된다. 이러한 해석은 <스타킹>[작품13], <happiness - 1kg>[작품 8]에서 진일보하여 분석적 입체주의회화에서 보이는 다차원적 표현이 가능해졌다. 그리고 <일상>[작품3], <39 정류장>[작품9]는 처음부터 하나의 덩어리로 공간을 점유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의 부속물이 결합된 종합적 입체주의 조각으로의 조건을 갖추게 된다.

이렇듯 적극적으로 공간을 수용하고 단편적인 이야기의 조각들이 결합되는 모습들은 피카소의 종합적 입체주의 작품 <정원의 여인>[도판6], <목욕하는 사람들>(도판7)에 나타난 사실과 같다. 따라서 본인의 연구 작품들은 드로잉된 평면에서 분절되거나 단절된 형태를 의도적으로 재구성하여 입체로 발전된 것으로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조소의 원형인 조각(彫刻)과 소조(塑造)로부터 변별성을 갖는 ‘종합적 입체주의적인 조각’의 형태를 나타내며, 이렇게 여러 부속물이 결합된 예는 (도판8), (도판9)에서 보듯이 현대조각에서도 흔히 소개된다.

간단명료하게 드로잉된 본인의 연구 작품들이 어떤 제작과정을 거쳐 완성되는지 개괄적으로 정리하면,

- ① 우선 드로잉된 스텐 판을 공간에 펼쳐 놓는다. 재료적으로 볼 때 드로잉의 간결함과 과장, 변형을 목적으로 스텐리스 스틸 판이 선택된 것이다.
- ② 면과 선의 사용에 따라 절개한다. 필요에 따라 절개된 부분들이 형태를 즉각적으로 드러냄으로 이를 통하여 만들어진 조각은 본인의 의중을 보일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다.
- ③ 공간에 펼쳐 놓거나 서로 조합하여 결합한다. 스틸은 철판보다 유연하여 볼륨감 또는 면의 두께감을 나타내는데 용이하고 세로로 된 선의 용접이 가능하다. 또한 제작과정이 간편해짐과 동시에 용접을 통하여 미세하게 얇은 두께로부터 점차로 두터워지는 모양의 표현이 수월하다.
- ④ 재질감을 표현한다. 연마 과정이나 그라인더의 터치 등에 의한 표면 광이나 거친 질감표현을 했다.

⑤자동차 도색용 페인트를 가지고 부분채색을 한다. 스텐리스 스틸 판은 부분채색이 용이하여 색채와 물성의 조화가 자연스럽게 공유된다. 하지만 부분 채색은 조각의 물성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사용하였다.

⑥위의 설명 이외에 부수적으로 철을 사용하기도 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의 단편들을 몇 개의 이미지로 드로잉하고 이것들을 스텐 판으로 오려낸 다음 서로 조합하여 결합함으로써 평면적 3차원의 조각을 제작하였다. 이것은 형태상의 자유로운 표현과 더불어 작품의 표면에 다양한 변화를 주는 것이 가능해진 조형작품이 되었다.

2) 캐릭터 이미지

일반적으로 캐릭터(character)는 사물의 특징이나 성격을 강하게 나타낼 수 있으며, 대상물이 무엇이던 표현이 가능하다. 본 논고를 통해서 시각화된 캐릭터 이미지조형은 현대여성들이 변화한 도심에서 보이는 도발성과 퇴폐적 이미지를 하나의 아이덴티티(identity)로 형성하고 이것을 ‘싹수없어 보이는 이미지’로 지속되게 노출시켜 스토리가 형성되도록 전개된다. 이를 위해서 특정 이미지의 과장과 유머러스한 풍자적 코멘트(Comment)가 사고의 틀로 제시되었다. 먼저 몸에 익은 일상의 습관과 그에 따른 행동이 이미지의 기반이 되며, 캐리커처적인 힘을 바탕으로 현대도시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여성의 이미지로 드로잉 하였다.

본인이 도시여성 이미지의 특성을 생동감 있는 일상과 유머러스한 조형으로 연구하기 위해 세 가지 전체구성방법을 사용하였다.

첫째, 도시이미지와 현대여성이 결합된 형태이다. 이 표현은 <명품-가짜>[작품1], <싸가지적 이미지-금연건물>[작품2], <술 -그리고 美>[작품16]에 잘 드

러나 있다. 우선 도시 이미지를 여성의 배경으로 만들어 주체를 돕도록 하였다. 따라서 주체가 되는 여성은 주체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과장된 형태로 묘사되었다. 이런 구조는 도심 속에서 자기자리를 지킨 채로 도시의 부속품들과 상호작용의 관계 속에서 그 자리에 알맞은 행동, 사고, 욕망을 갖도록 유도된다.

둘째, 캐릭터 이미지가 그림자를 갖는 형태이다. <좌대 위에서>[작품 4], <Shall we dance>[작품 12], <사춘기>[작품 15]는 만화의 캐릭터적인 이미지가 드로잉의 단계를 거쳐 이차원 평면 밖으로 일어서는 형태를 취한다. 이때 면 밖으로 드러난 이미지는 주체로서 현실의 의미를 지니며, 평면상에 비워진 곳은 그림자로 읽혀지며 무의식 또는 내면의 세계를 표현하였다.

셋째, 하나의 독립된 형태 안에서 의미가 부여된다. <Heel>[작품 5], <이중적 자아>[작품 6], <비너스-이중적 자아>[작품 7], <꽃>[작품 11], <생각 중>[작품14]는 밖으로 표현되던 메시지가 하나의 조형 안에 내재된 모습을 보이며 남성속의 여성, 여성속의 남성 등 이원론적인 결합을 통하여 자기완결성과 내적 발전논리를 갖추게 하였다.

이렇듯 도시여성의 이미지는 순간 포착된 캐리커처적인 표현으로써 이야기의 전달효과를 갖는 회화적 조각으로 설명하였다.

3) 작품 분석 및 재료적 기법



[작품1] 명품 - 가짜, 37 × 21 × 135cm, 철,
자동차 우레탄 페인트 2008.

[작품1] 명품 - 가짜

작품 재료: 철, 자동차 우레탄 페인트

작품 크기: 37 × 21 × 135cm

제작 년도: 2008

제작방법: 도시를 모티브로 형상화 한 것으로 1mm와 3mm 철판위에 인물과 건물의 형태를 각각 레이저로 절단하고 각 부분을 비스듬히 용접했다. 창문의 틀을 따로 만들어 창문에 열림과 닫힌 형태로 용접하였고 도시의 복잡한 풍경의 디테일 감을 주었으며 앞에 서있는 여인에게 시선이 가도록 형태를 주변사람보다 과장되게 부분 연마 작업 후 광택을 냈다. 나머지는 자동차 도색용 페인트로 도색을 하였다.

[작품1]은 도시여성들의 자기과시에서 오는 소비적 욕망에 의한 ‘허구성 (fabrication)’¹¹⁾을 표현했다. 과장되게 표현된 거구의 여인은 내면의 욕망 표출이다. 따라서 명품으로 치장하면 품격이 올라갈 것이라는 도시여성들의 허욕 (greed)이 작품에 반영되었다.

자신의 결점을 보완하기위한 현실성 없는 허욕은 값싼 모조명품을 출현시켰고, 일반대중들은 그것을 통하여 대리만족을 느끼거나 진짜인양 허세를 부린다. 하지만 작품주제에서 보이듯이 <명품-가짜>는 여성의 외형에 이미 최고 가치를 두지 않는다는 역설이 내재되어 있다. 즉, 자기완성은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주11) 허구성의 사전적 의미는 “사실에서 벗어나서 만들어진 모양이나 요소를 가진 성질”을 의미하며, 본인의 연구 작품에서는 허영(Vanity), 허욕(greed), 허세(bluff) 등으로 나타나는 도시여성들의 모습이다.



[작품 2] 짜가지적 이미지 - 금연 건물, 47× 28 ×61cm,
스테인리스 스틸, 마천석, 2008.

[작품 2] 싸가지적 이미지 - 금연 건물

작품 크기: 47× 28 ×61cm

작품 재료: 스테인리스 스틸.

제작 년도: 2008

제작 방법: 도시인들의 감성적 표현을 형상화 한 것이다. 흡연하는 여인의 모습은 2mm스테인리스 스틸 판으로 절단하였고 건물은 3mm스테인리스 스틸 판에 각각의 면을 돌리면서 용접하고 절곡시켰다. 이렇게 해서 얻은 나선형 구조를 가지고 ‘단힘’을 열린 공간으로 이끌어 냈다. 여인은 실루엣의 외형 안에 원형의 모습으로 연출되었고, 비스듬 각과 용접을 거친 후 수작업으로 연마작업을 통해 광을 냈다. 좌대는 계단 형태로 제작하여 도시의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만들었다.

[작품 2]는 주체가 되는 여성의 행위를 ‘죄스럽지 않은 미움’으로 해석했다. 이런 해석은 모호한 여성의 표정에서 밉지만 나름대로 귀엽게 여겨지는 이미지가 생산되었고, 금연건물이 오히려 흡연자에게 싸가지(씩수)없는 건물로 설정되었다.

단순화를 통해 과장시킨 나선형의 기하학적 입체건물은 닫혀있는 공간을 열린 공간으로 이끌어 건물의 안과 밖의 경계선을 모호하게 만들고, 사유의 범주와 그 바깥으로 여성을 내쫓는 형태로 제시되었다.



[작품 3] 일상, 61× 5.5 × 32.5cm, 철,
자동차 우레탄 페인트 2008.

[작품 3] 일상

작품 크기: 61× 5.5 × 32.5cm

작품 재료: 철, 차량도색용 우레탄 페인트 부분 도색

제작 년도: 2008

제작 방법: 지하철 긴 의자에 앉아있는 여러 사람의 다른 관점의 일상을드로잉한 것으로 5mm 철판위에 인물들을 캐릭터처럼 단순하게 처리하여 레이저로 잘랐다. 지하철 의자부분은 사각으로 절곡하였다. 그리고 10mm철판은 그림자 형태에 따라 커팅 하여 의자와 같은 흐름을 주었다. 또한 각각의 면들은 용접을 했고, 그림자와 의자는 우레탄 도료인 차량 도색용 페인트로 어둡게 채색을 했다. 인물들은 철 표면을 제거하고 소금물과 부식과 착색을 반복하여 그림자와 의자로부터 분리 시켰다. 커피를 진하게 녹여 붓으로 그린 뒤 착색하였다.

[작품 3]은 지하철의 풍경을 구성한 것이다. 기다란 의자에 앉아 개별적 일상에 몰입된 사적인 설정이다. 지하철 내부 공간속에서 무차별적으로 합쳐지는 동등한 것과 서로 다른 것들이 그 차이를 분명히 하면서도 함께 전체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일한 것의 관점으로 양립한다.

이렇게 짜여진 [작품 3]은 철판이 절개되어 3단계로 결합된다. 각각의 면들은 용접을 통하여 평면에서 입체로 재구성되고, 부식시킨 철판위에 붓으로 부분 묘사를 함으로서 조각에 회화적 그리기가 시도되었다.



[작품 4] 좌대 위에서, 23× 9× 48cm, 스테인리스 스틸, 2008

[작품 4] 좌대 위에서

작품 크기: 23× 9× 48cm

작품 재료: 스테인리스 스틸

제작 년도: 2008

제작 방법: 한 면에서 공간으로 전개되는 과정으로, 5mm 스테인리스 스틸 판위에 의자에 앉아 담배피우는 여인을 드로잉했다. 드로잉된 면을 레이저로 자르고 자라진 원판에서 약 2~3mm정도 테두리를 돌려 다시 한 번 자른다. 나머지 원판에 뚫린 면은 열을 가해 두드리면서 S자 곡선으로 구부리고, 그 윗면에 의자의 모양과 발의 모양을 일치시켜 용접했다. 마무리는 스테인리스 스틸의 특징을 살려 연마과정을 통하여 광을 주었다.

[작품4]는 드로잉 된 판을 오려서 180° 벌렸다. 뚫어진 원래 바닥면은 그림자와 같은 모습이 되었고, 새롭게 벌려진 면은 실체가 된다.

이렇게 표현된 <좌대 위에서>는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논쟁보다는 타인이 바라보고 있는 관점의 설정이다. 타인을 본다는 것은 스스로가 경험하여 알고 있는 부분을, 자신의 취향에 맞춰 보고 싶은 만큼 해석하여 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작품 5] Heel, 72× 42.5 × 60cm, 스테인리스 스틸, 철,
자동차 우레탄 페인트, 2008.

[작품 5] He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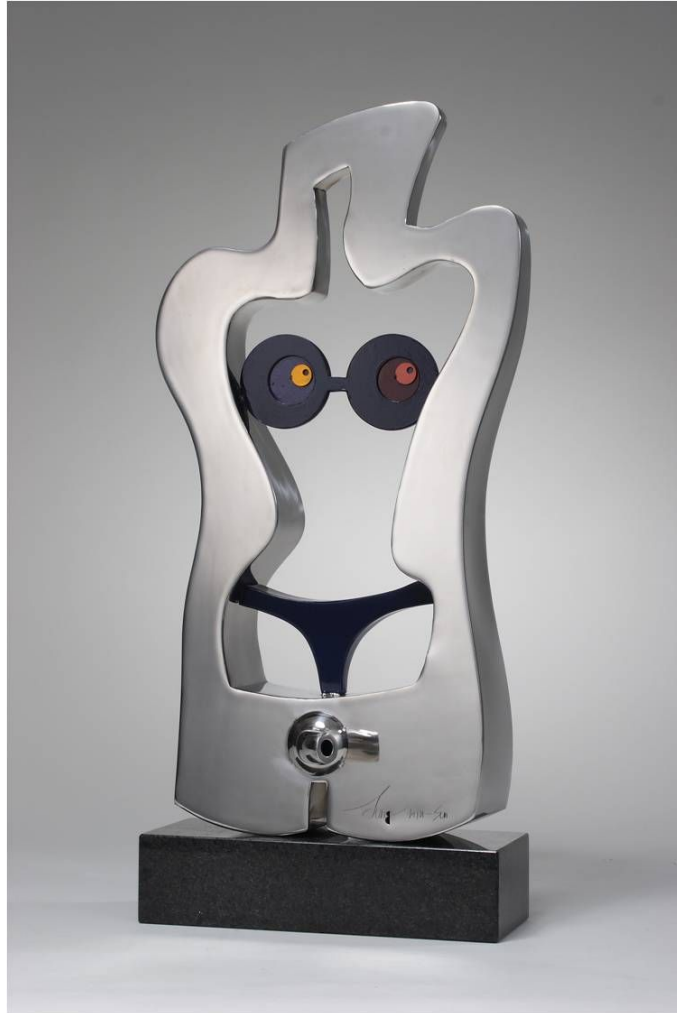
작품 크기: 72× 42.5 × 60cm

작품 재료: 스테인리스 스틸, 철, 자동차 우레탄 페인트 부분 도색

작품 년도: 2008

제작 방법: 등근 덩어리 감을 주기위해 두 장의 2mm 스테인리스 스틸 판에 여인이 힐을 신고 있는 발을 과장되게 드로잉하여 레이저로 자르고 각 면을 조금씩 열을 가해 두드려서 볼륨을 주면서 양면을 붙여 용접한 후 연마작업을 통하여 광을 내었고, 2mm철판 두장을 힐의 형태로 더 길게 오려서 면에 볼륨감을 강조하기위하여 완성된 덩어리 윗면과 아랫면을 C자로 구부리고 구부린 외각 형태만을 자동차 도색용 적색페인트로 부분 채색을 한 것이다.

[작품5] 하이힐은 여성의 상징과 자존심이다. 패션에서는 에로틱한 연출로 표현된다. ‘하이힐’로 변형된 여성의 체형을 흔히 섹시한 S라인(line) 이라고 한다. 여성의 자존심처럼 상징화 된 작품<Heel>은 높이가 높아질수록 발뒤꿈치를 받치고 있는 남성의 어깨는 무거워진다. 현대도시사회의 허구적인 소비에 대한 풍자이다.



[작품 6] 이중적 자아, 32× 24× 60cm,
스테인리스 스틸, 자동차 우레탄 페인트, 2008.

[작품 6] 이중적 자아

작품 크기: 32× 24× 60cm

작품 재료: 스테인리스 스틸, 자동차 우레탄 페인트 부분 도색.

제작 년도: 2008

제작 방법: 면의 두께와 뚫린 공간을 형상화 한 것으로 남녀가 하나임을 모티브로 잡아 드로잉 하여 2mm 스테인리스 스틸 판에 레이저 절단을 하고, 연마과정을 통한 양면은 두께 감을 주기위해 아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좁아지게 용접했다. 뚫린 공간 안의 여성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자 브래지어 모양의 스테인리스 스틸 판을 원형으로 크기를 달리하여 잘라 붙이고, T자모양의 팬티라인은 약간의 두께 감을 주어서 만들었다. 외부의 남성적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반원과 둥근 원봉을 구부려 남성의 남근 모양으로 단순화 했다. 풍자적 표현을 강조하고자 팬티와 브래지어는 사람의 얼굴 표정으로 연상되도록 자동차 도료용 페인트로 부분 채색했다.

[작품6]은 의학에서 양성의 호르몬이 남녀를 불문하고 모두에게 있음이 밝혀졌듯이, ‘남과 여’를 서로 보완적인 관계로 설정했다. 즉, 각각의 메시지가 하나의 조형 안에 내재된 모습이다. 남성속의 여성, 여성속의 남성 등 이원론적인 결합을 통하여 자기완결성과 내적 발전논리를 설명하였다.



[작품 7] 비너스 - 이중적 자아, 29× 24× 60cm,
스테인리스 스틸, 자동차 우레탄 페인트, 2008.

[작품 7] 비너스 - 이중적 자아

작품 크기: 29× 24× 60cm

작품 재료: 스테인리스 스틸, 자동차 우레탄 페인트 부분 도색.

제작 년도: 2008

제작 방법: [작품6] 과 같은 의미로 제작되었으며, 여성의 외각라인 안에 남성을 상징화 하기위해 상층부에 넥타이로 구성하여 2mm 스테인리스 스틸 판을 레이저로 잘라 양면에 두께 감을 주기위해 아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좁아지게 용접하고 옆에 보는 각도는 삼각형 형태를 보여주며 공간 안의 면과 선을 더욱 부각시키고자 넥타이 모양으로 잘라 용접하고 가벼운 느낌을 주기위해서 두 면을 만들어 따로 분리해 놓았다. 걸의 여성의 모습은 연마 작업을 통하여 광택을 주었고 넥타이는 자동차 도료용 페인트로 부분 채색을 했다.

[작품7]은 [작품6]과 같은 의미로 제작했다. 현대도시여성의 주체적인 사고를 반영했다. 도시여성들이 과거의 전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는 욕망을 남성적 상징인 넥타이를 결합하여 풍자적으로 표현했다.



[작품 8] happiness -1kg, 72× 42.5×60cm, 철,
자동차 우레탄 페인트2008.

[작품 8] happiness -1kg

작품 크기: 72× 42.5×60cm

작품 재료: 철, 자동차 우레탄 페인트

제작 년도: 2008

제작 방법: 한 면에서 반복된 선들의 공간으로 확장을 시도하였다. 뚱뚱한 여인이 저울에 올라간 모습을 모티브로 5mm 철판을 레이저로 자른 뒤 2mm철판으로 외각 실루엣을 드로잉 하여 자르고, 발끝과 저울의 표면을 중심으로 용접하여 의도된 선적인 여러 외곽 면들을 번갈아 좌우로 벌려 부채꼴로 형상화 하였다. 중심에 있는 여인의 머리, 팔, 옷 모양을 분절한 후 부분 연마 작업을 통하여 얼굴과 팔 다리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자동차 도료용 페인트로 채색을 하였다.

[작품8]은 도시여성이 다이어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살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모습이다. 이러한 행위는 타인의 시선에 자신을 짜 맞추려는 '허욕'¹²⁾의 표현이다.

[작품8]의 주제 <happiness -1kg>은 작품의 주체가 무거워 보이는 중심에서 가벼워 보이는 선으로 퍼지게 조작 되었다. 즉, 단순한 형체를 매개로 하여 기하형체로 구성된 작업이다. 이렇게 '맺힘과 퍼짐'으로 나타낸 것은 공간에 대한 본인의 적극적 수용의 자세가 표현된 것이며, 평면적 입체조각의 연구를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주12) 허욕(虛慾 : greed)은 헛된 욕심으로 허구(虛構 : fabrication)의 포괄적인 범주에 포함된다.



[작품 9] 39 정류장, 56 × 40 × 70cm, 스테인리스 스틸, 철,
자동차 우레탄 페인트, 2008.

[작품 9] 39 정류장

작품 크기: 56 × 40 × 70cm

작품 재료: 스테인리스 스틸, 철, 자동차 우레탄 페인트 부분 도색.

제작 년도: 2008

제작 방법: 도시의 빌딩과 마을버스를 단순하게 드로잉하였다. 2mm 스테인리스 스틸을 레이저로 전체 연마했다. 버스는 3/1지점을 잘라 면을 90°로 짜 맞추어 용접하였다. 움직이는 버스를 강조하기 위해 그라인더로 터치를 주어 고정된 건물과 다른 질감으로 표현 하였다. 건물과 나무는 레이저로 잘라 비스듬하게 구부렸다. 좌대부분은 길의 표현이다. 따라서 철판을 사선으로 자르고 두께감을 주었다. 건물의 창문과 버스 정거장 표지판을 자동차 도색용 페인트로 부분 채색을 했다.

[작품9]는 도시의 일상적인 풍경 속에 감추어진 욕구를 찾으려 했다. “내 나이 마흔에 도회지로 상경해서 성공했다.”라는 이야기가 모티브가 됐고, 본인의 나이 서른아홉 살 되던 해에 고인이 된 시아버지를 그리워하며 만든 작품이다.

ABSTRACT

STUDY FOR FABRICATION BY DESIRE OF MODERN CITY WOMEN

- ON THE BASIS OF MY WORK -

Jung, Min sun
Major in Sculpture
Dept, of Plastic Art
Graduate school of Plastic Art
Sungshin Women's University

Looking into meaning and value of woman linked by past time is like reviving with putting life into present time. And it will be related to make better future. It will make ourselves abundant and will be a vision to realize human and urbanized society rightly. Also it will be a key to understand our present situation accurately.

Image of modern city women has a deep relationship with trend. Women enjoy their own particular taste very sensitively through fashion and material value in the shops and streets of the city that became mainstream with popular goods. However in a view of wide category, it just looks like a standardized pattern produced by organized thought of trend. I expressed this image with formal pattern which is the subject for my work. In my work, formal expression and visual material create form of three-dimensional line that is occupying space with a starting point of two-dimensional plane expressed by drawing image. In this thesis, I called it 'story be drawing'

Women in my work are expressed by iron, stainless and steel and colors are added on metallic texture. Women's image produced by this way has a symbolism meeting world as the individuals before women. I described theoretically how to see this symbolism on the basis of form and material expression and I also stated formal character that the symbolism conceive through this thesis.

In the chapter I of introduction, I stated explanation for my work which is visualized by women's image captured in city and category for the study.

In the chapter II of body,

1. I stated basis of my work through 'fictional desire' and 'woman's sensitivity' which are the foundation of my theory.
2. I stated formal expression techniques through drawing and character image.
3. I stated about analysis and material techniques.

In the chapter III of conclusion, I arranged details of the thesis and re-examine a direction for development possibility in a future.

Finally I approached life energy represented by women in this simple and brilliant city with a view of 'study for plane pieces introduced by picturesque expression' and I suggested it by scope to extend improvement of my plastic arts.